

강진 병영시장을 뜨겁게 달굴 '불금불파' 재개장

이달 5일부터 11월1일까지 하반기 시즌...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만드는 불금의 장

강진군은 지난 5일 강진군 병영면 병영시장 일원에서 하반기 불타는 금요일 불고기 파티 '불금불파'의 화려한 막이 올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11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열리며, 주민·청년·상인이 함께 기획해 병영면을 활력 넘치는 체류형 관광지로 변화시키고 있다.

개막일 현장은 시작부터 관람객들의 뜨거운 참여와 열기로 가득 찼다. 병영시장에서 2만 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꽁 없는 톨렛 이벤트'에서는 강진사랑상품권, 지역 농산물, 여행용 세트 등 푸짐한 경품이 170명에게 돌아갔다. 또한 현장 퀴즈와 미션 게임을 통해 30명 이상의 관람객이 상품을 받으며 즐거움을 더했다. 하멜양조장과 연계한 이벤트도 큰 호응을 얻어, 행사 영수증을 제시한 방문객에게 하멜촌맥주 1잔을 무료 제공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외국인 팬투어단 30여 명이 참여해 글로벌 관광객의 시선으로 병영시장의 매력을 체험했다. 팬투어단은 불고기 시식, 전통시장 둘러보기, 청년 창업존 방문 등을 통해 강진의 음식·문화·관광 콘텐츠를 직접 경험하며 큰 호응을 보였다. 군은 이번 외국인 팬투어 참여가 향후 강진군 관광 홍보와 해외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멕시코 출신의 관광객 마리아 루이사 실마 메디나씨는 "한국인 친구와 함께 여행을 통해 강진으로 왔다"면서 "색다른 불고기 맛은 물론 고향을 생각나게 하는 시골 정취가 너무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가이드 김소연씨는 "요즘 외국인 관광객들은 서울, 부산은 넘어 대한민국 곳곳으로 가는 경향이 짙다"며 "앞으로도 강진으로 오는 여행상품을 더 많이 만들어 강진의 맛과 맛을 더욱 알리겠다"고 말했다.

군은 올해 하반기에 상설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되는 불금불파 텐트촌은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청년창업존 팝업스토어에서는 청년창업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업사이클링 공예체험은 환경과 예술을 접목한 특별한 체험을 제공하며, 병영상인 홍보관은 전통상인의 모습을 재현해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상권 홍보의 장으로 꾸며졌다.

행사의 백미는 단연 EDM DJ 공연이었다. 화려한 조명과 열정적인 무대가 어우러져 축제의 열기는 절정에 달했고, 병영시장은 젊음과 활기로 가득 찼다.

상반기 '불금불파'는 총 18회 운영으로 7,000여 명이 방문하고 1억2,000만 원의 판매 성과를 거두며 만단위까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하반기에는 상설 프



그램 확대와 추석 연휴 특별 이벤트까지 더해져 더 큰 성과가 기대된다.

무엇보다 '불금불파'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 공동체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점이다. 부녀회, 청년회, 발전협의회, 청년창업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어르신들은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며 자치단 의미 있는 소득을 올리고 있다. 지역 어르신들은 "평소 보기 힘든 공연을 보고 외지 관광객과 함께하는 주말이 큰 기쁨"이라며 "행사가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불금불파"는 단순한 야간 행사를 넘어 로컬브랜드·도시재생·환경부 공모사업과 연계된 복합형 지

역활성화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며 "병영면 고유의 문화자원과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콘텐츠의 시너지를 군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진군은 오는 추석 연휴(10월 3~4일)에도 '불금불파'를 정상 운영하며, 고향을 찾는 가족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고향방문 가족사진 무료 촬영 이벤트'는 부모님과 함께 행사장을 찾은 귀성객 가족에게 무료 사진 촬영 및 즉석 인쇄 서비스를 제공해 소중한 추억을 선물한다. 10월 4일에는 향우와 주민이 함께하는 '고향 노래자랑'이 열려 세대와 지역을 잇는 화합의 장이 될 전망이다.

강진/손경설 기자



완도군,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 이어져

완도군BC 유소년 야구단 육성 지원 모금 목표액 94% 달성

완도군의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 사업인 「완도군BC 유소년 야구단 육성 지원」 모금액이 목표액의 94%를 넘었다.

지난 6일 열린 '약산 진달래·혹염소 축제'에서는 양광용 광주전남시도민회장이 야구단을 위해 1천만 원을 기부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 사업은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에 기부하는 형태로 완도군 1호 사업의 「완도군BC 유소년 야구단 육성 지원」 모금 목표액은 4천만 원이다.

기부금은 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야구 꿈나무들의 훈련에 필요한 각종 장비 구입, 대회 참가비 등에 쓰

일 예정이다. 완도군BC 유소년 야구단은 창단 1년 6개월 만에 전국 대회에 우승을 두 번이나 하며 유소년 야구계의 신룡 강자로 주목받고 있다.

완도군은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미취학 아동 육아 여성 해양치유센터 이용 지원 '육아 맘, 해(海)강스 치유의 달 운영' 및 섬마을 취약계층 이불빨래 봉사 지원 '청산면 마을 공동빨래방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군은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유소년 야구단을 비롯한 인재 육성과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할 방침이다. 완도/장선우 기자

장성군이 딸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한다.

대상은 부모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생후 24~35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80세 이하 어르신으로 친조부, 외조부 모두 해당된다. 인터넷을 이용한 필수 온라인 교육 200시간을 이수하고, 월 40시간

장성군, 손자녀 돌보는 어르신에 돌봄수당 지급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원... 시범운영 후 내년 본격 시행

이상 돌봄시간을 가지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돌봄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된다.

부모 또는 조부모가 부모 소재지 행정

복지센터에 방문해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오는 22일부터 수시 접수를 시작하며, 사업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가족행복과 여성

다문화팀(061-390-7411)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손자녀 돌봄수당 지원을 통해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다"며 "온 가족이 행복한 장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담양군이 연말까지 담양사랑상품권을 15% 특별 할인 판매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담양사랑상품권은 지류형과 카드형 모두 기존 10%에서 15%로 할인율을 상향 적용한다. 1인 구매 한도는 지류형 50만원, 카드형 50만원으로 월 최대 100만원

지역경제 활력 위한 담양사랑상품권 15% 특별 할인 판매

소상공인·군민 지원 위해 할인율 상향, 연말까지 할인 운영

까지다. 모바일 상품권은 지난 3월부터 판매 정책이 변경돼 구매가 아닌 사용 기준으로

적립금이 쌓이며, 적립금은 상품권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이번 특별 할인은 올해 말까지 적용되

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이번 특별할인이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와 군민,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5일, 문화회관 세미나실에서 분청 및 읍·면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부가가치세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처리에 대한 개념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 방법, 불성실 신고에 따른 가산세

고흥군, 2025년 부가가치세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납부 등 부가가치세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 교육 내용으로는 ▲부가가치세 개념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리 절차 ▲전

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매입세액 공제 절차 등 주로 실무 중심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참석자들의 질의응답과 사업별

주요 사례 공유를 통해 부가가치세 전문성을 높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군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부가가치세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고 직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순천시, '전동킥보드·공유자전거 불법주차 신고 채팅방 운영'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기반 실시간 불법주차 신고 창구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시민들의 보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동킥보드·공유자전거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을 9월부터 개설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오픈채팅방은 카카오에서 '순천시 전동킥보드'를 검색하거나 시에서 제공하는 홍보물의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신고 시에는 △일시 △위치 △기기 QR코드 △현장사진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접수된 내용은 담당 부서가 즉시 확인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주요 신고 대상은 ▲점자블록 ▲횡단 보도 ▲보도 중앙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치에 불법 주차된 공유자전거와 전동킥보드다. 오픈채팅방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시는 이번 오픈채팅방 운영을 통해 불법주차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오픈채팅방을 활용함으



로써 기존 국민신문고 등의 방식보다 빠른 대응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개인형 이동장치(PM)와 공유자전거의 건전한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정성인 기자

